

'광주의 경리단길' 동명동에 문화마을 만든다

2023년까지 170억 투입...노후골목길 정비·근대자산 활용 ACC~전일빌딩245~충장로~양림동 연계 문화·관광축 계획

광주를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로 인기가 높은 광주 원도심 동명동이 '광주다움'을 담은 문화마을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동명동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2023년까지 170억원을 들여 노후 골목길을 정비하고 근대 자산을 활용한 문화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문화마을 마스터플랜수립용역은 지난해 5월에 착수해 주민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동구정 및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

쳐 완료했으며, 시는 올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마스터플랜에 담겨진 실행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먼저 동계천로 남·북 측은 '체험과 문화', 동·서 측은 '쉼과 휴식', 장동로는 '만남과 놀이', 동명로는 '소통과 상상' 등 4가지 테마를 입히기로 했다. 옛 시·도 교육감과 관선 시장 관사, 광주 최초 관광호텔, 정지 장군을 기리는 경열사 터 등 주변에 근현대사를 느끼는 콘텐츠를 가미하고 청소년 공간 '동명 살롱'을

조성한다. 만남의 광장, 골목 정원, 공공 디자인 시범 거리 등도 생긴다. 동명동을 '광주에 오면 꼭 가야 할 장소'로 꾸미고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 245, 충장로, 양림동 등까지 도보로 방문하게 할 문화·관광 축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마스터플랜으로 연구에 참여한 전남대학교 오세규 교수는 "동명동은 광주라는 도시의 숨결이 그대로 녹아있는 광주다움 그 자체인 곳으로, 마스터플랜은 동명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담았다"면서 "이 사업이 실현된다면 겹겹이 쌓여온 우리 도

시의 기억을 동명동의 길에서 한 컷씩 되살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영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동명동은 광주의 '오래된 미래'로 살터, 일터, 문화 놀이터로 상정되는 공간"이라며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 정체성을 품은 문화마을로 브랜드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명동 일대는 일제 강점기 철거된 광주 읍성의 동문 밖 동계천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역사, 교통, 교육, 행정 등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최근엔 카페, 맛집, 공방 등이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의 관광객에게 주목을 받으며 '광주의 경리단길', '동리단길' 등으로 불리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들게이트 서울에서 광주방면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무등의 빛'이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관문'으로서 장소적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구상하기로 했다.

광주 관문 '무등의 빛' 환히 밝혔다

무등산 형상화 미디어아트 호평 속 활용 확대키로

광주 관문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무등의 빛'이 호평 속에 활용 폭을 넓힌다. 25일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광주들게이트 서울에서 광주 방면에 설치된 무등의 빛 가동 시간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추모 기간부터 24시간으로 확대됐다. 애초 상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17시간이었다.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와 김민국 나무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대표가 협업한 무등의 빛은 광주들게이트 상부에 가로 74m, 세로 8m 크기 무등산 조형물로 지난해 초 설치됐다. 광주에서 서울 방면의 윈드 베일

(Wind Veil) 구조물에도 외부 조명이 추가돼 야간 가시성을 높였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1만2000개 픽셀이 조명에 따라 시시각각 색깔을 연출한다. 광주시는 관문으로서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홍보 방안을 구상하고 특정 문화행사 등 시의성 있는 영상 작품도 구현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등의 빛을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 사이에도 문화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온 제도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남 어민 수 50년 전 10분의 1 수준

고령화 심화 생산량은 증가...전북·참조기·낙지 효자품목

전남지역 어업 종사자 수가 50년 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가 25일 발표한 지난 50년 전남 어업구조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어업인구는 4만2000명으로, 1970년(41만4000명) 보다 89.8%(37만1000명) 감소했다. 어업가구 수도 50년 전 6만5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71.2% 줄었다. 70세 이상 어민은 1.2배(1700명) 증가한 반면 19세 이하는 48.9배(21만3000명) 감소해 심각한 고령화를 반영했다. 지난해 50년 동안 남생 어민은 21만3400명에서 2만1300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여성도 20만100명에서 2만800명으로 89.6%(17만9400명) 급감했다. 어업만을 하는 전업 가구는 3400가구에서 7600가구로 2.2배 증가했다. 어업 생산량은 지난 50년 간 17만에서 191만3000t으로 약 11.2배 증가했다. 1990년과 어업 생산금액을 비교하면 4251억원에서 2조6365억원으로 6.2배(2조 2114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생산액 상위 품종은 참조기 1027억원, 낙지 1026억원, 첫새우

733억원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각 4.9배, 3.8배, 3.7배 증가했다. 양식 부문에서는 30년 전(1990년) 5900만원에 불과했던 전북 생산액이 5830억원으로 무려 9882배 폭증했다. 김은 763억원에서 4521억원으로 5.9배 증가했다. 전국 생산량과 비교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품종은 첫새우(76.3%), 서대(75.0%), 낙지(64.1%), 민어(61.1%), 참조기(52.6%) 등이었다. 지난해 전남지역 일반해면에서 가장 많이 잡힌 품종은 2만8000t이 생산된 멸치로, 굴(1만5591t)→참조기(1만3537t)→삼치(1만2694t)→첫새우(9802t) 순으로 많았다. 일반해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생산금액을 기록한 품종은 지난해에만 1026억 6000만원을 기록한 참조기였다. 생산금액은 참조기 위에 낙지(1026억원)→첫새우(733억원)→멸치(597억원)→병어(556억원) 순으로 높았다. 천해양식 최다 생산품종은 다시마(64만4095t)이었고, 최고 생산금액은 전북(5830억원)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식투자로 2천만원 이상 차익내면 과세

2023년부터 전면 확대...채권·펀드 내 주식도 세금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엔 20%, 3억원 초과 구간엔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존에는 자본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

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는데, 그간 대주주로 국한됐던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당연연 가능해진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달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초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6. 23(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6. 16(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자산매각공고

학교법인 서남학원 소유자산을 아래와 같이 일반경쟁 입찰 매각공고 합니다.

아 래

1. 대상물건	토지		건물		공고번호
	지번	면적(㎡)	동수	면적(㎡)	
1. 남원시 동충동(남원면) 344-2	매지	1,286	17동, 주차실	4,982.00	공고 2020-11호
2. 남원시 광학동(남원면) 713번지(25필지)	학교 외	400.157	11개동	68,650.04	공고 2020-12호
3. 아산시 송유면 평촌리(아산면) 347-591 41필지	임야 외	166,029	27개동	29,761.33	공고 2020-13호
4. 광주시 광안구 대동동 684-1외 21필지	임야 외	58,216			공고 2020-14호
5. 광주시 남구 영평동 5253	임야	14,281			공고 2020-15호
6. 광주시 남구 진영동 517	임야	5,038			공고 2020-16호
7. 광주시 광안구 상평동 397-1	학교 외	23,657			공고 2020-17호
8. 나주시 남평읍 교촌리외 34-2	전 외	24,105	37개동(신도림)외 4동	9,835.7	공고 2020-18호
9. 나주시 남평읍 사리리 582, 581, 583	임야	104,933			공고 2020-19호

2. 입찰방법: 방문입찰

3. 입찰공고기간: 2020. 06. 23. ~ 2020. 07. 05

4. 입찰서 제출 마감: 2020. 07. 06. (월) 14:00

5. 개찰일시: 2020. 07. 06. 14:00

6. 개찰장소: (학)서남학원 청산사무소(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상기 세부 자세한 내용(지번, 면적 등)은 학교법인 서남학원 홈페이지 http://www.seonamtw.co.kr를 참조 바랍니다. 2020. 06. 26.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

(55039)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출처서법임)
Tel: 063) 288-8626, 8627 Fax: 063) 288-8628

산행안내

6월28일(일)
▲광주자연보전담사회 6월28일(일) 장수, 함양 백운산(1279m), 염주채
육관 07:00, 무등경자강 07:20, 동광 주춤플러스 07:40 * 다음카페 광주 자연보전담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7월1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1일(수) 경남 거

침술경력50년

금침을 한번만 맞으면 노후한 몸속 기관이 살아나 활기가 넘치고 젊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정력강화, 중풍이해, 각종 암, 불치질환

단 한번의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010-8491-2060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0년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총주주전원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 06. 26. 주식회사 아이젠해운항공 전라남도 광양시 향안로 71-59 (도야동) 청산인 강기연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당 회사는 2020년 5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0년 5월 19일 해산등기를 완료한바 당사에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부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26일 대동중합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농공단지길 32 청산인 장해균

7월4일(토)
▲광주금당산악회 7월4일(토) 영동 민주시민 문화체육, 봉선동롯데마트와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와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회관앞 06:50, 비엔날레주차장앞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호산회 7월4일(토) 비곡도 선왕산 도초도 수곡축제,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5:5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 후문 06:2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8일(수) 전남 여수 남도 상산-둘레길 산행, 백운로타리아어벙크와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대우앞 07:3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